

FTA 개방화시대, 생산비를 낮춰야 살아남는다

농축산물 개방화 물결이 거세다. 가장 우려되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계산물도 수입산이 주류로 올라설 날이 멀지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육계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닭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브라질 등과 따져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값싼 수입 닭고기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우리 양계농가들이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최근 전남 나주의 육계 사육농가와 의 만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봤다.



위 계 육 기자
농업인신문

H사 위탁농가인 최영철 씨는 깔짚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단숨에 최우수 농가로 올라설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6년전 육계 사육에 뛰어들던 최 씨는 농장에 잔재하고 있던 살모넬라, 콕시듐 등 각종 질병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한 약품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러다 우연히 농장 인근에 소재한 업체를 통해 2010년부터 깔짚 재활용 시스템을 추진하게 됐다. 그해 6번 출하, 워낙 사육성적이 뛰어나 우수농가로 선정될 정도로 눈에 띄게 향상됐다. 만성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과거를 털어내고 육계 사육 선진농가로 떠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병아리 입추 시마다 계사 내 뿌려야 하는 깔짚이 1회전당 15톤 내외였지만, 재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소요됐던 약품비용이 70% 이상 줄어들면서 연간 생산비용을 4천여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각종 질병을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며, 타 농장보다 2~3일 조기 출하할 수 있게 되고, 사료요구율도 1.4대로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부터는 친환경무항생제 인증농가로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고 있다.

최 씨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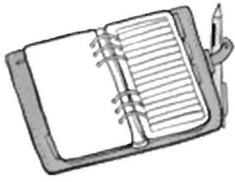
우선 깔짚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출하와



함께 깔짚을 한곳에 모아 호기성미생물균제를 투입하면 온도가 60℃까지 상승한다. 이를 통해 깔짚에 잔재해 있던 각종 질병이 사멸된다. 또 온도가 60℃까지 상승하면 이를 뒤부터는 스키더로더로 갈아엎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깔짚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총 15일이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출하와 함께 외부업체에 계사청소를 의뢰하고 입추전에 새로운 깔짚을 까는 것과 견준다면 무척 번거롭고 귀찮지만 최 씨는 생산비 절감이 유일한 경쟁력이라는 소신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마다 깔짚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깔짚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현실에서 깔짚 재사용은 생산비용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육계 사육농가들이 눈여겨



기자수첩

계열주체들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발생하는 경영이익을 농가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육계 농가들은 이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 관행 사육을 과감히 버리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초래한 것이다. 그저 그런 육계농가로 삶을 영위하는데 만족하기 보다는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해보는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육계농가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

볼 대목이다.

대다수의 육계 농가들은 관행 농법을 선호 하기 마련이다. 이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귀찮기 때문일 것이다. 최 씨도 깔짚 재활용이 귀찮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 씨는 남들보다 생산비를 낮추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기꺼이 깔짚 재활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남들과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며, 관행에 물든 병폐다.

요즘 사육비 인하로 논란이 거세다. 대다수의 계열주체들은 사육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계열주체들의 입장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에서 생산비 인상을 부추기는 사육비 인상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다만, 계열주체들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발생하는 경영이익을 농가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육계 농가들은 이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 관행 사육을 과감히 버리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초래한 것이다.

그저 그런 육계농가로 삶을 영위하는데 만족하기 보다는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해보는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육계농가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 